

## 오직 국민! 오직 민생!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 ① 일명 '유류세지원법'으로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② 현행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 월 10만 원 이하에서, 법으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밥값지원법(소득세법)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2차)에서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7대 긴급 민생법안' 중 2개 법안(유류세지원법·근로자밥값지원법)이 통과되었음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민생우선실천단'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의 고충을 덜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경주하여왔음
- 이러한 당 차원의 노력을 국회 차원으로 격상시켜 더 큰 틀에서 논의하고자 국회특위의 구성·가동을 요구·관철시킨 결과, 지난 20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간사 김성환 정책위의장)'가 구성 되어 오늘 첫 민생법안이 특위를 통과한 것을 다행지만 다행으로 생각함
- 우리 민주당은 오늘의 성과를 마중물 삼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연동 제도입법 △금리폭리 방지법 등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경제난에 시달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임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따질 것은 꼼꼼하게 따져가며 국회 제1당의 입법권을 ‘오직 국민! 오직 민생!’ 만을 위해 행사할 것임. ‘퍼펙트스톱’의 복합경제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 위험까지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위태로운 민생경제를 소당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22. 7. 2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환